

# 이 시대 문화·지성도를 바꿀 철학과 미술의 아름다운 만남

김선혜 · 문학·지성사 편집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상 예술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시기로 꼽히는 르네상스는 전 유럽사회를 '인간'이라는 주제로 복원한 거대한 문화혁명이었다. 도나텔로,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등 숭한 예술적 천재들이 등장했고, 이 시기 그들의 작품에는 당대의 문화와 역사, 정치와 사회 분위기 등이 녹아 있다.

임영방 선생은 프랑스 유학시절 르네상스 미술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스승인 앙드레 샤흐텔(Andre Chastel, 1912~1990) 교수의 영향을 받아 평생 동안 르네상스를 연구해 왔다. 선생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은 문예부 훈운동으로 불리는 르네상스에 대한 기념비적 저술로서,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예술운동의 탄생과 소멸을 밝히고 있다. 선생은 르네상스 시대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르네상스가 단순한 미술운동의 차원을 넘어 전체 유럽사회가 하나의 목표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복원하려 한 거대한 시대적 혁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장님으로부터 탈고된 원고를 받았다. 그 분량에 놀랐고 그 열정에 숙연해졌다. 200여 장의 풍부한 그림과 2,8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 안에는 르네상스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주요 작품론 해설이 담겨 있었다.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양했던 이 시기의 미술을 이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으

리라. 가히 그 작업을 짐작할 만했고, 그 열정에 경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선생과의 첫 대면. 미술이 주는 감동과 그 감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일생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 출판사에 나타난 선생은 편안해 보이는 옷차림 뒤에 날선 지성을 품고 계셨다. 고회를 훌쩍 넘긴 노인이었음에도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표정과 열혈 청년 같은 가슴을 지닌 '현역' 미술사학자였다.

선생은 40년 간 수집해 온 자료와 누적된 기초적 작업을 바탕으로 10년의 세월을 바쳐 이 저술을 완성함으로써 "40년 큰 짐을 이제야 벗었다"고 하신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자라는가, 세상을 왜 함부로 살면 안 되는가를 르네상스 예술을 공부하며 깨달았다"고도 덧붙이셨다. 선생은 이 저술을 탈고한 후에도 중세미술에 관한 또 다른 저술을 계획하셨고, 이미 집필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선생의 학문의 실제적 성과는 실로 이제 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권의 책을 독자에게 권한다. 책의 두께가 다소 두꺼워 자칫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림과 함께 읽어갈 때의 재미만 읽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미술사에 관한 지식을 넘어 르네상스 미술의 가치를 탐색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